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남서울대학교 한신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소아정신과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5세 유아 어머니 235명(남아 115명, 여아 12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한국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및 유아용 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3세 유아 어머니가 4-5세 유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좌절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2-3세 유아가 4-5세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여성(Involvement)이 낮으면서 좌절감과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는 위축되고 불안/우울하며 신체화 문제 등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처벌적이거나 비일관적인 훈육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며 좌절감과 까다로운 자녀 특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 문제행동

* 본 연구는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Tel : 031-370-0525, Email : debkslee@hs.ac.kr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비롯한 싸이코패스로 인한 범죄와 비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발달심리 및 정신건강관련 연구자들은 이들이 이미 과거 유아기 시절부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여왔음을 밝히면서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보다 심각한 정서 및 문제행동과 정신장애로 발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 시절 문제행동의 조기발견과 중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Qi & Kaiser, 2003). 이에 따라 유아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유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유병율과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 3-5세 유아 842명을 대상으로 한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과 박진아(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7-13% 정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들 중 3-4% 정도는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지역 만 3-6세 유아 245명을 대상으로 한 신의진, 이경숙, 황유정과 박진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보고에서 3.2-6.6%, 교사 보고에서 3.8%-26.8%의 유아가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유병율 뿐 아니라 이후 발달과 적응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시작된 문제행동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계속 지속되는 경향(Patterson, Capaldi, & Bank, 1989)이 있으며 시간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강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 학업문제(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사회적 고립 및 또래거부(Wood, Cowan, & Baker, 2002) 등 부가적인 사회적 부적응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중재변인들을 탐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부모관련 변인, 그중에서도 주양육자인 어머니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가지만, 출생 직후 맺는 일차적 관계인 가족들과의 상호관계,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맺는 부모자녀 관계는 이후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연령상 어머니에게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영유아기에는 어머니가 이들의 이후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mphaus, & Reynolds, 2006)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의 정신과적 진단 편람인 DC0-3(신의진, 이경숙, 이재명, 2003)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모자녀관계 장애를 영유아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신병리 중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대상 상담 및 임상분야에서는 모-자녀관계를 영유아의 발달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추후 정신병리의 완화와 사회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적극 활용되는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시절 맺은 모-자녀관계가 자녀가 성장한 이후 부부관계와 정서적 적응에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Overbeek, ten Have, Vollebergh와 Graaf(2007)의 연구결과, 그리고 Overbeek, Vollebergh, Meeus, De Graaf와 Engels(200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부모관련 변인 중 모-자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육이 가족중심주의적일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 즉 일심동체로 여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최인재, 2005)를 고려해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영향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은 모-자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부모자녀관계구인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박영신, 김이철, 2000; 홍성훈, 도현심, 2002; Lifford, Harold, & Thapar, 2008; Zhang, 2007)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관계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방식 등의 행동측면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 정서적 관계 및 심리적 유대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관계를 애착(Attachment), 부모가 가정의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일관된 반응과 처벌 수준인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함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함께 하는 지에 대한 관여(Involvement),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자신감인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인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Kamphaus와 Reynolds(2006)의 부모양육·관계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PRQ-P)를 사용하여 모-자녀관계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맺는 관계가 유아의 문

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모는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Crnic & Greenberg, 1990) 일부 부모는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신체 및 심리건강에 큰 영향을 받는다(O'Brien, 1996).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병리(Lamb, 1999; Silverman, Bauman, Iryes, 1995)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지대한 영향(Abidin, Jenkins, & McGaughey, 1992; Renk, Roddenberry, Oliveros, & Sieger, 2007; Kazdin, & Whitley, 2003)을 준다. 더욱이 자녀의 성취를 부모의 성취로 동일시하는 한국 부모의 심리적 특성(방희정, 2000)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높을지 부분적으로나마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 중 모-자녀관계를 비롯하여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타당도가 검증된 Abidin (1995)의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을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정경미, 이경숙과 박진아(2008)의 K-PSI-SF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과 관

련된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적 결과는 추후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어떠한 측면에 구체적으로 개입과 중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측면에서 앞서 밝힌바와 같이 모-자녀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구인측정,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의 사용을 통해 이들 변인이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결과의 경험적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의 모-자녀관계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유아의 성과 연령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진아, 2001;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를 고려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유형별로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미치는 영향이 각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 달라진다는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어머니가 자녀와 맺는 관계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자녀관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2세부터 5세까지 유아 235명(남아 115명, 여아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연령은 2-3세(2세 42명, 3세 59명)가 101명(43%), 4-5세(4세, 63명, 5세 71명)가 134명(57%)으로, 평균연령은 4.2세(SD = 1.27)이었다. 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부 교육수준	%	모 교육수준	%	사회경제적지위	%
대졸 이상	66.5	대졸 이상	54.8	상류	5.6
고졸	32.0	고졸	42.8	중류	88.5
중졸이하	1.0	중졸이하	1.8	하류	5.1
결측치	0.5	결측치	0.6	결측치	0.5

66.5%, 고졸은 32%로 나타났으며, 모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54.8%, 고졸은 42.8%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류가 8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PRQ-P)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mphaus와 Reynolds(2006)의 부모자녀관계척도인 PRQ를 이경숙, 박진아와 신의진(진행중)이 번안하여 예비표준화 연구에 사용한 K-PR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 및 가족상담 분야에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임상 및 정신과에서 부모자녀관계 장애 진단과 평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심리교육, 더 나아가 법정심의회와 법정에서 자녀양육권 분쟁에 사용될 부모자녀관계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Reynolds & Kamphaus, 2006). 본 도구의 구성은 자녀와의 근접성과 공감 및 자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지와 관련된 아동과 부모의 정서적·인지적·행동적 관계인 애착(Attachment, 11문항), 부모가 가정의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신념 수준과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일관된 반응과 처벌 수준인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9문항),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함께 하는 지에 대한 관여(Involvement, 8문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경험하는 편안함과 자신감인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문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해야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수준인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문항) 등 5개 하위영역,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도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임상적 기준점인 T 점수가 제공되며, 점수평정은 ‘전혀 없다’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3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애착(Attachment) .80,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79, 관여(Involvement) .77,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3,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7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가 PSI 확장형의 120문항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 36문항으로 재구성한 PSI 축약형을 정경미, 이경숙과 박진아(2008)가 번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K-PSI-SF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 보고용 질문지로 만 1세에서부터 12세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세 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는데, 이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PD),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인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그리고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는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K-PSI-SF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PD) .8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79,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 .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유아용 행동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1.5-5)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유아용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K-CBCL 1.5-5는 부모가 만 1.5세에서 5세 사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로, 정서반응성, 위축, 우울/불안, 신체적 불편감을 측정하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주의력,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문제행동과 수면문제를 포함한 총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항은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의 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2점의 3점 형식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영역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90, 외현화 문제행동 .9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첫째,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한 뒤,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각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과 연령의 영향을 통제된 뒤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별로 각각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통계

유아의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변인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차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성에 따른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문제행동의 차이검증

	남아(n=115) M(SD)	여아(n=120) M(SD)	t
모-자녀관계			
애착(Attachment)	20.46(5.00)	20.70(5.06)	-0.25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15.96(4.21)	15.94(3.89)	0.03
관여(Involvement)	12.44(3.05)	12.61(4.00)	-0.25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11.35(2.96)	10.86(3.58)	0.82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76(4.00)	9.23(3.58)	-0.6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PD)	29.72(6.86)	30.91(7.80)	-1.49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23.92(4.69)	23.52(5.28)	0.72
까다로운 아동(DC)	27.31(7.10)	27.52(7.37)	-0.26
유아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9.10(7.07)	9.60(8.17)	-0.60
외현화 문제행동	9.81(7.00)	8.05(6.80)	2.39*

* $p < .05$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문제행동의 차이검증

	2-3세(n=101) M(SD)	4-5세(n=134) M(SD)	t
모-자녀관계			
애착(Attachment)	21.24(4.20)	20.58(5.45)	0.60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15.77(4.22)	15.90(4.01)	-0.30
관여(Involvement)	13.43(3.28)	12.50(3.81)	1.18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10.97(3.32)	11.09(3.56)	-0.17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10.72(3.96)	8.62(3.98)	2.5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PD)	32.30(7.18)	30.14(7.56)	2.22*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24.29(4.70)	23.61(5.16)	1.05
까다로운 아동(DC)	30.05(6.52)	26.89(7.19)	3.52***
유아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8.90(7.24)	9.29(7.43)	-0.51
외현화 문제행동	9.56(6.30)	8.10(6.67)	2.17*

* $p < .05$, ** $p < .01$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났다. 모-자녀관계의 경우 2-3세 유아에 비해 4-5세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좌절감과 부모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자녀로 인해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경우 2-3세 유아에 비해 4-5세 유아가 주의산만함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

모-자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자녀관계 중 훈육기술을 제외하고 모두 유사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자녀관계 중 애착, 관여(Involvement), 양육효능감, 관계적 좌절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연계를 잘 하지 못하며, 양육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적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수록 유아는 정서반응성이 떨어지며, 위축되고, 우울·불안하며,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자녀관계 모든 하위영역,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

표 4. 각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1									
2	.46***	1								
3	.64***	.37***	1							
4	.63***	.47***	.58***	1						
5	-.12*	.13*	-.25***	-.32***	1					
6	-.11*	-.05	-.22***	-.31***	.47***	1				
7	-.31***	-.10	-.37***	-.40***	.44***	.39***	1			
8	-.06	.05	-.16**	-.26***	.63***	.45***	.48***	1		
9	-.10*	.02	-.25***	-.26***	.48***	.36***	.46***	.55***	1	
10	-.11*	-.21***	-.23***	-.28***	.60***	.34***	.45***	.63***	.67***	1

모-자녀관계(1. 애착; 2. 훈육기술; 3. 관여; 4. 양육효능감; 5. 관계적 좌절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6. 부모의 고통; 7.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8. 까다로운 아동), 유아의 문제행동(9. 내재화 문제행동; 10. 외현화 문제행동)

* $p < .05$, ** $p < .01$, *** $p < .001$

트레스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연계를 잘 하지 못하며,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하고, 양육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며, 관계적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수록 유아는 주의산만해지거나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표 5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 절대값의 분포가 .12-.64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유아의 성과 연령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진아, 2001;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를 고려하여 성과 연령을 1단계에 투입하여 성과 연령의 영향을 통제 한 뒤, 2단계 회귀분석에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척도를 투입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6).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자녀관

표 5.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β	ΔR^2	β	ΔR^2
성별	.02		.02	
연령	-.01		.06	
		.00		
모-자녀관계				
애착(Attachment)			.14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00	
관여(Involvement)			-.14*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06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PD)			.00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20***	
까다로운 아동(DC)			.35***	
				.39***
전체 R ²				.39***

* $p < .05$, *** $p < .001$

표 6.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β	ΔR^2	β	ΔR^2
성별	.14*		.15*	
연령	-.09		-.02	
		.03*		
모-자녀 관계				
애착(Attachment)			.08	
훈육기술(Discipline Practice)			-.17*	
관여(Involvement)			.05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11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PD)			-.09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09	
까다로운 아동(DC)			.43***	
				.43***
전체 R ²				.46***

* $p < .05$, ** $p < .01$, *** $p < .001$

계 중 심리적 관여($\beta = -.14$)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20$)과 까다로운 아동($\beta = .35$)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량의 39%를 추가로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일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함께 하는 활동을 적게 할수록,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느끼는 관계상 좌절감을 더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자녀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가 정서적으로 반응적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불안 우울하고 신체적

불편감을 보이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유아의 성, 연령, 모-자녀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들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39%를 설명하였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자녀관계 중 훈육기술($\beta = -.17$)과 관계적 좌절감($\beta = .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까다로운 아동($\beta = .43$)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변량의 43%를 추가로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정 내 규칙을 잘 설정하여 자녀가 이를 잘 지키도록 격려하지 못하고 자녀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

일관적인 처벌을 더 많이 할수록,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느끼는 관계상 좌절감을 더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는 주의산만하고 공격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유아의 성, 연령,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들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중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에 따라 모-자녀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연령에 따라 2-3세 유아 어머니가 4-5세 유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관계에서 심리적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양육스트레스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가 여아에 비해, 2-3세 유아가 4-5세 유아에 비해 주의산만함과 공격성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이경숙과 동료(2004)들의 연구결과, 그리고 정상발달 유아의 경우도 2-3세 경까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여러 학자(Cummings, Iannotti, & Zahn-Waxler, 1989; Shaw, Gilliom, Ingoldsby, &

Nagin, 2003)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기질적으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이경숙 외, 2004), 2-3세 어린 연령의 유아는 4-5세 유아에 비해 언어 및 인지적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현 형태의 일환으로 산만한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시기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와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관계상 좌절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4-5세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유아의 공격성이나 반항행동은 이후 발달정신병리의 위협요인이 되며(Campbell, 1995; Nagin & Tremblay, 1999), 무엇보다 2-3세 경에 자신의 기질과 부모의 사회화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억제적 통제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Emde, Biringen, Clyman, & Oppenheim, 1991) 추후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 2-3세경 더 어린 연령 유아의 부모에게 자녀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2-3세 연령인 어머니가 4-5세 연령인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를 다루기 더 어렵고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어린 연령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과 우울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일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함께 하는 활동을 적게

할수록, 관계적 좌절감을 더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자녀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할수록 유아의 불안과 우울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험군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와 시간을 공유하고 자녀의 일상을 잘 파악하는 연루성이 적을수록 아동이 사회 부적응을 더 많이 보였다는 Magnus, Cowen, Wyman, Fagen과 Work(1999)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와 일상을 공유하면서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아가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적 심리 부적응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중재하거나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이나 주의산만한 행동과 달리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인 불안과 우울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가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동시에 자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과잉보호하거나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하지 못하는 등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된다(Vasey, & Dadds, 2001; Wenar, & Kerig, 2004). 이는 비록 자녀가 지각한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자녀와 심리적으로 시간을 공유하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녀의 내면 심리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주의산만함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정 내 규칙을 잘 설정하여 자녀가 이를 잘 지키도록 격려하지 못하고 자녀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밀관적인 처벌을 더 많이 할수록, 그리고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가 주의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자녀가 지각한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결과, 일관성 없이 처벌적인 부모의 훈육이 아동의 비행 문제에 중요 영향을 미친다는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의 연구결과,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 통제하면 반사회적 공격행동을 감소시킨다는 Haapasalo와 Tremblay(1994) 연구결과, 그리고 고위험군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가정내 규칙을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서 일관되게 훈육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면서 통제할수록 자녀의 사회적응이 증진되었다는 Magnus, Cowen, Wyman, Fagen과 Work(199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주의가 산만하거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하기 까다로운 자녀로 인해 양육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처벌적이고 지시적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무반응을 보이

거나 방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자녀는 기를 죽이지 않고 길러야 한다’는 사회적 양육철학이 팽배해진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고 가정 내에서 규칙과 규율을 정하여 일관적으로 훈육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유아의 주의산만함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규칙과 규율을 중요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훈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위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가정 내에서 규칙과 규율을 정한 뒤, 일관성 있게 훈육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좌절감과 자녀가 키우기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맺는 역기능적 관계가 자녀의 현재 ADHD 외현화 문제행동 증상 뿐 아니라 3년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Liffrod, Harold와 Thapar (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좌절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를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어머니가 양육하기 까다로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좌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모-자녀관계 측면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

자신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좌절감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능력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연구대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대부분 중산층, 대졸 이상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어머니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방희정, 2000)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보고한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모-자녀관계와 자녀양육은 모 뿐 아니라 부와도 이루어진다.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자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모와의 관계보다는 부와의 관계에 느끼는 욕구만족감이 이들의 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한소영과 신희천(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추후 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재 실시하여 비교한다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모-자녀관계에 대한 질적분석(Sidebotham & ALSPAC Study team, 2001)이나 Q-sort 방법을 이용한 측정(Mol & Buysse, 2008),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으로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횡단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및 양

육행동 등의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부모관련 변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간 양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Harach, & Kuczynski, 2005; Snyder, Cramer, Afrank, & Patterson, 2005)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모와 자녀의 양측 시각에서 인식하는 모-자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관련해서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각기 영향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결과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관련 중재프로그램을 개발과 진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회지*, 38(2), 109-146.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8).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정신병리 유형에 따른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3.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41-65.
- 신의진, 이경숙, 이재명 역 (2003). 진단분류: 0-3. 영유아기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 진단분류. 하나의학사.
- 신의진, 이경숙, 황유정, 박진아 (2009).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유아 문제행동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 부모용 (주)휴노컨설팅: 서울.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진행중).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척도(Korean-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Preschool: K-PRQ-P)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발달*, 17(4), 53-73.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 매뉴얼. 학지사.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

-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홍성훈, 도현심 (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bidin, R. R., Jenkins, C. L., & McGaughey, M. C. (1992). The relationship of early family variables to children's subsequent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21, 60-69.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13-149.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s*, 55, 218-232.
- Crnic, K., & Greenberg, M.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9). Aggression between peers in early childhood: Individual continuity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60, 887-895.
- Emde, R. N., Biringen, Z., Clyman, R. B., & Oppenheim, D. (1991). The moral self of infancy: Affective core and procedural knowledge. *Developmental Review*, 11, 251-270.
-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 Harach, L. D., & Kuczynski, L. J. (2005). Constructin and maintena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idirectional contrib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327-343.
- Kamphaus, R. W., & Reynolds, C. R. (2006). PRQ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manual. Pearson Assessment.
- Kazdin, A. E., & Whitley, M. K. (2003). Treatment of parental stress to enhance therapeutic change among children referred for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504-515.
- Lamb, D. (1999). Parenting stress and anger: the Honk Kong experienc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337-346.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49.
- Lifford, K. J., Harold, G. T., & Thapar, A.

-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HD symptom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285-296.
- Magnus, K. B., Cowen, E. L., Wyman, P. A., Fagen, D. B., & Work, W. C.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ies and child adjustment in highly stressed urban black and white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1), 55-71.
- Mol, J. D., & Buysse, A. (2008). Understandings of children's influenc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A Q-methodological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2), 359-379.
- Nagin, D. S., & Tremblay, R.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 1181 - 1196.
- O'Brien, M. (1996). Child-rearing difficulties reported by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1, 433-446.
- Overbeek, G., ten Have, M., Vollebergh, W., & de Graaf, R. (2007). Parental lack of care and overprotec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DSM-R disorders. *Society of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87-93.
- Overbeek, G., Vollebergh, W. A. M., Meeus, W. H. J., De Graaf, R., & Engels, R. C. M. E. (2004). Young adults' recollections of parental bonds: does satisfaction with partner relationships mediate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with mental disorders? *Society of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703-711.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1989).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139-168). Hillsdale, NJ: Erlbaum.
- Qi, C. H.,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 Renk, K., Roddenberry, A., Oliveros, A., & Sieger, K. (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29, 37-57.
- Sha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89-200.
- Sidebotham, P. & the ALSPAC Study team (2001). Culture, stress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7(6), 469-485.
- Silverman, E. J., Bauman, L. J., & Iryes, H. T. (1995).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fficacy to psychological di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hronic physical illness. *Health Psychology*, 14, 333-340.
- Synder, J., Cramer, A., Afrank, J., & Patterson, G. R. (2005). The contributions of ineffective discipline and parental hostile attributions of child misbehavior to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 Developmental Psychology*, 41, 30-41.
- Tomblin, J. B., Zhang, X., Buckwalter, P., & Catts, H. (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73-482.
- Vasey, M. W., & Dadds, M. R. (2001).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nar, C., & Kerig, P. (200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4(Ed.). McGrawHill: Education.
- Wood, J. J., Cowan, P. A., & Baker, B. I. (2002). Behavior problems and peer rejection in pre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1), 72-88.
- Zhang, Q. (2007).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styles in Chin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113-128.
- 1 차원고접수 : 2009. 11. 8.
심사통과접수 : 2009. 12. 3.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8.

Eff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Jin-Ah Park

Namseoul University

Kyung-Sook Lee

Hanshin University

Yee-Jin Shin

Yondong Severance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oth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Subjects were 235 preschoolers(115 boys, 120 girls) between two years old and five years old. The instruments included: (a)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b) Parenting Stress Index, (c) Child Behavior Checklist 1.5-5.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involvement and mother-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preschooler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econd, mothers' discipline practic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ird, mothers' relational frustration and difficult child of parenting stress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oretical and therapeutical implications of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preschooler, behavior problem